

60~74세 백신접종 예약률 42.9%

70~74세 58.3%·65~69세 49.1%·60~64세 29.9%

만성중증호흡기질환 45.9%, 교사·돌봄인력 57%

사전예약 6월3일까지...온라인 24시간 예약 가능

60~74세 고령층 911만여 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이 4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돌봄인력 대상자의 예약률은 57.0%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 맞은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는 효과와 같다'며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예방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7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있는 효과와 같다"며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빠른 우산 사이에서 비를 맞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1차 접종은 373만4000명, 2차 접종은 94만명이 각각 완료됐다. 전체 인구 수 대비 접종률은 7.3%, 1.8%이다.

현재 60~74세 고령층의 사전 예약률은 42.9% 수준이다. 접종 대상자 911만955명 중 390만7417명이 예약

을 마쳤다.

연령대 별로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대상자 213만1274명 중 124만2375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예약률은 58.3%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65~69세의 경우 대상자 298만9177명의 49.1%인 147만7157명,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60~64세 392만4344명의 29.9%인 118만7885명이 각각 예약했다.

또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중 접종 대상자 7911명의 45.9%인 3630명이 예약을 끝냈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돌봄인력 대상자 34만4858명 중에서는 19만6692명이 예약해 57.0%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사전 예약은 오는 6월3일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전화예약(1339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지자체별 탄력적) 내 하면 된다. 대전, 울산, 충북, 경남은 '지역번호+120'로, 그 외 지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http://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예약(대리)인의 인증만으로 대리예약이 가능한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접종 일정을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정 단장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많은 경우 중증으로 이완되고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라며 "우리나라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이를 막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86.3%, 화이자 백신 92.8%이다.

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분석됐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발생 건수는 예방접종 전인 2월 16개소에서 4월 6개소로 감소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대전 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방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

성남의 한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사례가 없었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접종 후에 항체 형성까지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연립·다세대 주택 화재안전종합컨설팅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관내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종합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주거시설 생활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전문가로 이뤄진 합동점검반이 방문해 컨설팅을 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설탐지기 등 활용 안전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이용 안내 ▲자율안전관리 점검표 배부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화재안전종합컨설팅 신청 방법은 방문, 유선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신청서는 무안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주택화재 예방전담조사반(061-450-0799)로 연락하면 된다.

무안=이성기 기자

담양소방, 캠핑장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관내 담양군·곡성군 소재 캠핑장 3개소를 방문해 관계자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중 밀집 시설에 비해 야외활동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 대비책으로 야영장을 찾는 캠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컨설팅은 관계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초기 대응방법 위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화재경보기, 손전등 설치또는 비치 지도 등 관공진 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기준 안내 ▶캠핑장 화기 등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방지 지도 ▶난방용품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봄철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관계인 및 야영장 이용객들은 화재에 방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해경구조대, 구조역량 강화 훈련 통해 팀웍 다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해경구조대의 구조능력 제고와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5월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훈련은 구조대 총원이 참여하며 완도해경 전용부두와 관할지역 사고 취약개소에서 개인별 구조능력 향상, 상황발생시 최상의 팀워크 형성과 각종 해양사고 대비 대응능력 배양·인간 출동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훈련 중 다가올 '바다의 날'을 맞아 완도해경 전용부두 항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해상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상에서 떠있는 갈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선박스크류 부유물 감김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훈련은 12일 주기 훈련으로 △의상환자 처치, 대량 환자 중증도 분류 △구조영법, 구조운반 법 훈련 △응급봉쇄도구를 이용한 선박과공병쇄훈련 △관내 지형지물과 선박 파악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다. 완도=이민혁 기자

광주 남부소방, 부처님 오신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광주 남부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5월 19일) 봉축행사에 대비해 18~20일까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부처님 오신 날 관련해 봉축 및 연등 행사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초기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흥룡사 등 7곳을 방문해 사전안전점검, 화재예방지도 등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자율 안전관리를 지도했다. 또 코로나19 집단 감염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나이트클럽 다녀간 공무원들 대기발령

순천시, 공무원 8명 복무지침위반 여부 조사·징계

순천시에서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청 공무원 8명이 나이트클럽을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나이트클럽을 출입한 순천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해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순천 나이트클럽은 지난 4월 22일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였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백명에서 3백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 8명의 공무원은 전승주농업

기술센터 직원 4명과 해동면사무소 2명 등 총 8명의 직원들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업소에서 코로나 검사결과 출입 공무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던 기간 중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해 사적 모임이나 위험시설 방문 등을 자제했어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유흥시설을 출입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는 복무 지침 위반,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복무 관리 지침을 정비해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선길 순천시 보건소장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거나 자가격



리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내지 못하면 일상으로의 복귀는 더 늦어진다"며 "잠시동안 만남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조광제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